

The Pearl of Torah — Mattiyahu 24:29–42

Core Passage — Mattiyahu 24:29–42

Yehoshua describes a time of cosmic disturbance, the appearing of the Son of Adam, the gathering of the elect, and the necessity of remaining watchful. The central warning is not to calculate the day, but to recognize the season and live ready: **“Watch therefore, for you do not know what hour your Master is coming.”**

1. Torah Layer — Devarim 21:10–25:19

At first, this long Torah section may appear unrelated to Mattiyahu 24. It contains laws concerning marriage, inheritance, lost property, clothing, wages, justice, vows, family responsibility, and Amalek. Yet a common thread runs through them: **covenant faithfulness is demonstrated in ordinary life.**

Devarim does not define readiness merely as waiting for some future intervention of YHWH. Yisrael must live faithfully **today**—returning what is lost, paying the worker promptly, using honest weights, protecting the vulnerable, and remembering Amalek.

This illuminates Yehoshua's command, **“Watch.”** Biblical watchfulness is not passive observation. It is covenant faithfulness practiced while one waits.

2. Prophetic Layer — Isaiah 54:1–10

Isaiah 54 provides the emotional heart of the Pearl. Zion is pictured as a barren and abandoned woman who suddenly receives the command: **“Sing, O barren one.”** Her apparent desolation will not be

핵심 본문 — 마태복음 24:29–42

예호수아께서는 우주적인 격변과 인자의 나타남, 택하신 자들의 모임, 그리고 깨어 있어야 할 필요성을 말씀하십니다. 중심적인 경고는 그 날을 계산하라는 것이 아니라 때를 분별하고 준비된 삶을 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처음에는 이 긴 토라 본문이 마태복음 24 장과 관련이 없어 보일 수 있다. 결혼, 상속, 잃어버린 물건, 의복, 품삯, 정의, 서원, 가족의 책임, 아말렉에 관한 계명들이 나온다. 그러나 이 모든 계명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 **언약에 대한 신실함은 일상의 삶에서 드러난다.**

신명기는 준비됨을 단순히 미래에 있을 야훼의 개입을 기다리는 것으로 정의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오늘**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 잃어버린 것을 돌려주고, 품꾼의 삯을 제때 주며, 정직한 저울을 사용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아말렉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은 예호수아의 *****“깨어 있으라”*****는 명령을 밝혀 준다. 성경적인 깨어 있음은 수동적인 관찰이 아니다. 그것은 기다리는 동안 실천되는 **언약적 신실함**이다.

이사야 54 장은 이 Pearl 의 정서적인 중심을 제공한다. 시온은 자녀가 없고 버림받은 여인처럼 묘사되지만 갑자기 *****“영태하지 못한 자여 노래하라”*****는 명령을

permanent. YHWH will gather, restore, and enlarge her.

YHWH declares, **“With great compassion I shall gather you.”** The language of gathering becomes especially significant beside Mattiyahu 24:31, where the elect are gathered “from the four winds.”

Isaiah therefore supplies an important background for reading Mattiyahu 24. The gathering is not merely rescue from catastrophe; it belongs to the larger prophetic hope of **YHWH restoring His scattered covenant people.**

3. Hidden Connection — “He Will Gather His Elect”

Isaiah 54:7: “With great compassion I shall gather you.” **이사야 54:7:** “큰 긍휼로 내가 너를 모을 것이다.”

Mattiyahu 24:31: “They shall gather together His chosen ones from the four winds.”

The striking connection is **gathering after distress.** Isaiah moves from abandonment to compassion, from scattering to gathering, and from apparent judgment to restored covenant peace. Mattiyahu similarly moves through tribulation and cosmic disturbance toward gathering.

4. The Days of Noah — Ordinary Life Before Sudden Judgment

Yehoshua then recalls Noah: **“They were eating and drinking, marrying and giving in marriage...until the flood came.”** Eating, drinking, and marriage were not themselves sins. The problem was that ordinary life continued while people remained unaware of approaching judgment.

받는다. 그녀의 황폐함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야훼께서 다시 모으시고 회복시키며 넓히실 것이다.

야훼께서는 **“큰 긍휼로 내가 너를 모을 것이다”**라고 선언하신다. 이 “모으심”의 언어는 마태복음 24:31 에서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신다는 말씀과 나란히 놓을 때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이사야서는 마태복음 24 장을 이해하는 중요한 배경을 제공한다. 이 모으심은 단순히 재앙에서 구출되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야훼께서 흩어진 언약 백성을 회복하시는** 더 큰 예언적 소망에 속한다.

마태복음 24:31: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두 본문을 연결하는 중요한 주제는 **환난 후의 모으심**이다. 이사야는 버림받음에서 긍휼로, 흩어짐에서 모으심으로, 심판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회복된 언약의 평화로 나아간다. 마태복음 역시 환난과 우주적인 격변을 지나 모으심으로 나아간다.

예호수아께서는 노아의 때를 말씀하신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는데...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것 자체가 죄였던 것은 아니다. 문제는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일상생활에만 몰두했다는 것이다.

This connects powerfully with Devarim 21–25 because Torah places holiness precisely inside ordinary activities—marriage, work, property, money, clothing, family, commerce, and relationships.

Therefore the answer to the “days of Noach” is not withdrawal from ordinary life. It is **living ordinary life differently because one belongs to YHWH.**

5. “One Taken and One Left”

Mattiyahu 24:40–41 describes two in a field and two women grinding: **“one is taken and one is left.”** The immediate context is Noach. The flood suddenly distinguished between those prepared and those unprepared.

The emphasis therefore should remain on Yehoshua's explicit conclusion: **“Watch therefore.”** The point is not speculation over dates but preparedness before YHWH.

6. The Pearl — Watchfulness Is Covenant Faithfulness

Here the three readings converge. **Devarim asks:** How are you living while you wait? **Isaiah promises:** YHWH has not forgotten His scattered people. **Mattiyahu warns:** The gathering will come unexpectedly, therefore remain watchful.

Thus, **watchfulness is not staring toward heaven trying to determine when something will happen. Watchfulness is living faithfully before YHWH today because we know that He will fulfill what He has promised.**

7. Final Synthesis

이것은 신명기 21–25 장과 강하게 연결된다. 토라는 거룩함을 바로 일상생활 속에 두기 때문이다. 결혼, 노동, 재산, 돈, 의복, 가족, 상거래와 인간관계 속에서 거룩함이 나타나야 한다.

그러므로 “노아의 때”에 대한 해답은 일상생활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야훼께 속한 사람답게 일상생활을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다.**

마태복음 24:40–41 은 밭에 있는 두 사람과 맷돌질하는 두 여인을 묘사하면서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진다”**고 말한다. 바로 앞의 문맥은 노아의 때이다. 홍수는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를 갑자기 구별하였다.

그러므로 강조점은 예호수아께서 직접 내리신 결론에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핵심은 날짜를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야훼 앞에서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세 본문이 하나로 모인다. **신명기는 묻는다:** 기다리는 동안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사야는 약속한다:** 야훼께서는 흩어진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셨다. **마태복음은 경고한다:** 모으심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올 것이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깨어 있음은 하늘만 바라보며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깨어 있음은 야훼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그분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Devarim 21:10–25:19 teaches what covenant faithfulness looks like in everyday life.

Isaiah 54:1–10 promises that apparent abandonment will end in compassion, restoration, and gathering.

Mattiyahu 24:29–42 announces the coming gathering and warns YHWH's people to remain awake and prepared.

The hidden Pearl connecting them is therefore: **The people who are ready for YHWH's future gathering are identified by their faithfulness to Him in the present.**

Mussar

Do not allow expectation of tomorrow to distract you from obedience today. The Torah repeatedly places righteousness in small, ordinary decisions.

Return what does not belong to you. Pay what you owe. Deal honestly. Protect the vulnerable. Remember what YHWH commanded. These ordinary acts are themselves expressions of spiritual watchfulness.

The watchful person is not necessarily the one who knows the most about the end times. The watchful person is the one whom YHWH finds faithfully doing what He commanded when the appointed moment arrives.

The Pearl

Live today as one who expects to be gathered tomorrow.

내일 모으심을 받을 사람처럼 오늘을 살아가라.

신명기 21:10–25:19 은 일상생활에서 언약적 신실함이 어떤 모습인지 가르친다.

이사야 54:1–10 은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긍휼과 회복과 모으심으로 끝날 것을 약속한다.

마태복음 24:29–42 은 다가올 모으심을 선포하며 야훼의 백성에게 깨어 준비하라고 경고한다.

그러므로 세 본문을 연결하는 숨겨진 Pearl 은 이것이다. **야훼의 미래의 모으심을 준비하는 백성은 현재 그분께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내일에 대한 기대가 오늘의 순종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토라는 반복해서 작고 평범한 일상의 결정 속에 의를 두고 있다.

내 것이 아닌 것은 돌려주고, 갚아야 할 것은 갚으며, 정직하게 행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야훼께서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한 평범한 행동들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음의 표현이다.

깨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 대해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다. 깨어 있는 사람은 정하신 때가 왔을 때 야훼께서 명령하신 것을 신실하게 행하고 있는 사람이다.